



청송심씨 심벌마크

# 青松沈氏宗報

발행인 : 회장 심갑보  
편집인 : 문화이사 심갑택  
서울시 중구 을지로30길 47,  
찬경회관 5층  
전화 : (02)2267-7857  
(02)2267-9339  
F A X : (02)2269-7755  
인쇄 : SNS인쇄  
02-2277-0245

격월간 제129호

홈페이지 | www.csshim.or.kr

2018년 1월 31일(수)

## 新年辭



심갑보  
대중회 회장

존경하고 친애하는 종친(宗親)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정유년(丁酉年)을 뒤로하고, 희망찬 2018 무술년(戊戌年)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해 우리 대중회(大宗會)는 전국 지파종회(地派宗會)와 종인(宗人)들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격려(激勵)와 성원(聲援)에 힘입어 숙원사업(宿願事業)을 비롯한 주요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하였고, 앞으로 더 큰 발전을 도모(圖謀)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基盤)을 조성(造成)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충직(忠直)과 친근(親近)의 상징인 황금개의 해를 맞이하여 일가 간 화합과 친목을 바탕으로 대중회 발전과 더불어 청송심문(靑松沈門)이 더욱 번창(繁昌)할 수 있도록 굳게 다지고, 전국의 종친 여러분께서도 건강과 함께 만사형통(萬事亨通)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祈願)합니다.

지난 2017년은 북핵문제, 대통령 탄핵, 지진 발생, 서민경제의 침체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한 가운데서도 우리 대중회는 2016년도 안성위토 소유권 다툼 송사(訟事)에서 승소(勝訴)한데 이어, 작년에는 우리의 염원(念願)이며 오랜 숙원사업(宿願事業)이었던 4세조 청성백 재각인 청성재(靑城齋)를 창건(創建)하는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큰 업적(業績)을 이룩한 가운데 안타깝게도 호사다마(好事多魔)라는 말처럼 회계업무(會計業務)와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대중회는 이 사건 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損害賠償) 등의 책임(責任)을 물어 민·형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를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契機)로 삼아 회계업무 제도개선(制度改善)을 통한 확고(確固)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불상사(不祥事)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措處)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새로운 사업을 확장(擴張)하기보다는 내실(內實)을 보다 튼튼히 다지고자 합니다. 먼저, 송조돈목(崇祖敦睦)과 종재관리(宗財管理)에 힘써 위선사(爲先事)와 일가간 친목(親睦)을 도모하고, 위토(位土)를 효율적으로 관리(管理)하였습니다.

5처 묘소 2단소의 소나무와 잔디 등 묘역 주변(墓域周邊)을 정비하고 정성껏 제수(祭需)를 마련하여 년2회 춘·추 시제(時祭)를 부족함 없이 봉행(奉行)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국의 지파종회(地派宗會)와 종인(宗人) 탐방(探訪)으로 일가 간 화합과 유대관계(紐帶關係)를 더욱 돈독(敦篤)히 하고, 뿌리교육을 통하여 조상님의 훌륭한 발자취와 심문(沈門) 전통이 후대(後代)에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매년 종재(宗財) 전수조사(全數調査) 팀을 구성하여 심문의 총유물(總有物)인 위토의 효율적 관리·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둘째, 수익사업(收益事業)을 발굴하여 재산증식(財產增殖) 및 장학사업(獎學事業) 활성화를 도모하여 후손들의 인재양성(人才養成)에 힘쓰고자 합니다.

대중회 장학사업이 2013년도부터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모두 5회에 걸쳐 345명의 학생들에게 2억5천만 원의 장학금(獎學金)을 지급하였으며, 앞으로도 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심문의 자녀들에게 향학열(向學熱)을 고취(鼓吹)시켜 우리 문중의 발전과 나아가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인재양성(人才養成)에 힘쓰고자 합니다.

그동안 남다른 관심과 사랑으로 후학(後學)을 육성하고자 하는 독지가(篤志家) 여러분의 뜻에 따라 장학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수익사업(收益事業)을 통한 재산증식(財產增殖)에 힘써 장학기금(獎學基金)마

련에 차질 없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4세조 청성백재각의 주변 경관(景觀)을 웅장하고 아름답게 꾸미어 연천을 청송심문의 "제2의 마음의 고향"으로 조성(造成)하고자 합니다. 청송심문을 명문가(名門家)의 반열(班列)에 오르게 하였을 뿐 아니라, 오늘날 심문의 번창(繁昌)을 이루게 하신 청성백선조님의 재각을 마련하지 못한 안타까움을 가슴속으로만 삭여오다가, 2014년도 재각건립의 첫걸음을 시작한 이래 만 3년만인 지난해 11월3일 전국에서 모인 750여명의 일가들의 축복 속에서 성황리(盛況)에 준공식 기념행사를 치르는데 대하여 비록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심문의 일원(一員)으로서 감회가 새롭고 자랑과 긍지를 느낍니다.

청송심문의 제2의 시조로 추앙(推仰)받는 청성백 선조님의 재각은 조상님에 대한 숭배(崇拜)와 일가 간 협력의 산물(產物)이며, 선조님의 유훈(遺訓)과 음덕(蔭德)을 후세에 길이 빛나게 할 요람(搖籃)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훌륭한 재각을 건립하기 위하여 십시일반(十匙一飯) 정성을 모아주신 종회와 종친여러분, 그리고 재각건립추진위원을 비롯한 시공자와 현장 감독관 등 재각건축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청송심문 일가 여러분! 올해에도 조상님을 숭배(崇拜)하고 일가간 친목(親睦)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서로 배려(配慮)하고 따뜻한 정(情)을 나누면서 우리 청송심문이 타 문중의 귀감(龜鑑)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지난해 일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격려(激勵)와 성원(聲援)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가내(家內)에 만복(萬福)이 깃들시기를 기원합니다.

戊戌 元朝  
靑松沈氏大宗會 會長 沈 甲 輔



### 일가여러분 무술년(戊戌年) 새해에도 家內 萬福이 가득하시고 만사형통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 문 : 宜斗 相泳 相殷 相郁 晶求 榮變 龍俊 載鴻  
載榮 宇永 大平 漢煥 勳鍾  
명예회장 : 宜洛  
회 장 : 甲輔  
부 회 장 : 宜七 相和 相錄 相植 相國 玄根 贊求 一用  
敏變 載冕 正輔  
감 사 : 相烈 相賢 賢輔  
집 행 부 : 彥泰(총무이사) 甲澤(문화이사)  
유 사 : 遠變 相福 弘變 正秀 哲裕 洪變 載龍 相國  
이 사 (가나다순)  
서 울 : 光變 光變 技變 奉變 三圭 相慶 相晚 相瑞  
相祚 相學 相翰 錫希 英輔 旺變 玉仁 完圭  
勇鎮 佑變 思龍 雄變 變元植 殷植 翊變  
寅變 載求 載金 載德 載奉 在臣 載岸 載烈  
在雄 載崙 載正 正變 種福 朱變 俊輔 昌輔

春輔 春植 忠澤 亨求  
경 기 : 康變 光輔 揆一 極澤 文錫 伯綱 相大 相英  
相雨 上殷 相贊 相許 相弘 相勳 瑞玲 錫鎔  
洵變 洋變 良變 彥村 榮變 英變 完輔 禹植  
元輔 元輔 胤變 應夏 載根 載萬 載文 載聖  
載烈 載浩 鍾洪 振裕 昌輔 炯燦 玄週 弘變  
興周 熙週  
부 산 : 敬道 萬仁 成變 載德 載榮  
대 전 : 揆善 奉變 聖輔 宜哲 逸變 載運 載重 喆用  
인 천 : 江水 揆成 大植 相圭 相振 錫文 應茂 彝變  
宜杓 載錫 載善 在安 駿求 炯茂  
대 구 : 相培 成澤 楨變 賢錫 護雄 勳  
광 주 : 明變 珉變 相祐 思慶 在均在 益 鍾德  
駿變 鎮植  
울 산 : 隆求 英求 應輔

강 원 : 東變 東出 萬澤 茂植 尙求 相烈 相珉 相昭  
相夏 成起 愚弘 載求 在澤 載鉉 春變 夏變  
경 남 : 揆實 東變 明變 茂變 載廣 在模 載華 點輔  
경 북 : 能光 相國 相東 相完 相禧 琬澤 宜石 載根  
載德 在叔 載玉 載浩 載洪  
전 남 : 棋官 棋柏 日變 貞變 正植 行變  
전 북 : 大變 斗變 相根 尙道 相榮 相哲 相獻 秀永  
秀一 載政 載學 鍾根 周變  
충 남 : 甲澤 永鍾 完澤 雲澤 允澤 載令 仲根 仲變  
漢植 行根 泓植  
충 북 : 光輔 相榮 相鶴 成來 良變 殷變 仁輔 載福  
載榮 載鈺 載赫 中來  
해 외 : 相昱 (캐나다)

2018년 1월 1일  
청송심씨대중회 임원진 일동

심씨명현보감-3

## 忠惠公(諱: 連源) 심씨명현보감(沈氏名賢寶鑑)

《127호에 이어서 계속》

두 상신이 공의 해임을 청원한 간절함을 알고서 아뢰기를, “심모(沈某)는 선조(先朝) 때의 옛 신하로서 아무런 까닭없이 퇴임하려고 함이 아닐 것이고, 직위를 오래 비워두어 시일을 경과하기 때문에 중임(重任)을 벗으려는 것 뿐입니다.

신(臣) 등이 전일(前日)에 임임(仍任)을 청한 것이 어찌 오늘에 이르도록 병이 낫지 않고 위중해질 줄 헤아렸겠습니까? 오늘날 비록 사임을 허락한다고 할지라도 병이 나은 뒤에 다시 씌어 또한 고사에도 있으며, 또 그의 사병(辭病) 상소에 아름다운 말을 조목별로 적어 올려 진계(進戒)함을 잊지 않았으니, 원한 건대 가납하시고 또 특별히 교서를 내려 그의 뜻에 보답하소서.” 하니, 대답하기를, “경의 소원에 따라 해임을 허락하고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를 제수하겠으며 상소에 답하는 교서는 또한 명을 내려 타이르겠다.” 하였다. 처음에 공이 상소를 올리고자 초고를 잡았을 때 자제들이 ‘피로하여 몸이 손상한다’면서 중지하라고 간하자 말하기를, “내가 비록 병으로 오래 입시하지 못했으나 일찍이 하루도 군왕을 잊은 적이 없었는데, 일조에 죽게 된다면 비록 작은 정성을 바치려 한들 될 수 있겠는가? 내 일찍이 보건대, 대신들이 병이 심하면 임금이 관리를 보내 문병을 하고 곁해서 뒷일을 자문하면 단지 ‘왕은(王恩)이 지중하다’고만 일컬었고, 한마디 말도 시정(時政)에는 미친 것이 없었으니, 어찌 병으로 인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정성을 다해 말지 못하는 것은 심신이 혼란해지지 않았을 때에 평소의 포부를 펴고자 함이다.” 하였다.

공이 병이 난 뒤에 출사(出仕)하지 못하면서 국록을 받는 것은 의리상 편하지 못하다고 여겨 가인(家人)들에게 받지 말라고 일러두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양상(兩相)이 ‘유사(有司)에게 시켜 전부 갖추어서 공의 집에 보낼 것’을 청하였다. 임금이 공의 병이 위중하다는 말을 듣고서 내의원(內醫院)과 어약(御藥)을 보내어 머물러서 치료해주게 하고 또 별도로 관리와 양의(良醫)를 보내어 안후를 살펴 하루 세 차례 서계(書啓)를 올리게 하였는데 이때 좌승지 심수경(沈守慶)에게 명하여 문병하였으며 또 중사(中使)를 보내어 어찰(御札)을 내리기를, “경의 여섯 조목의 진계(進戒)한 내용을 보니 가히 애군(愛君憂國)의 정성이 엿보여 내 심히 가상하게 여기오. 그러나 경이 여러 달 동안 휴가중임에 미안스러워 편안하게 해주기 위하여 청원을 들어준다.” 하고 이어 선물을 하사하였고, 세자 역시 다시 보덕(輔德)을 보내어 문병하였다. 임금이 얼마 뒤 우승지 정종영(鄭宗榮)을 보내어 하고 싶은 말을 물으므로, 공이 조복(朝服)을 몸에 덮고 그 위에 띠를 걸치게 한 다음 서계를 올리기를, “신이 품고 있던 뜻은 전에 올린 6조

문에서 이미 다 아뢰었습니다. 다만 원하옵건대 정사하시는 즈음에 마음은 충후(忠厚)하게 두고 일 처리는 관대하기에 힘써 하면 나라의 운수가 영묘하고 장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다시 주서(注書)를 보내어 비답하고 위로하니 공이 정성껏 사은함이 처음과 같았다. 이날 저녁에 드디어 운명하니 임금이 크게 슬퍼하며 유사에게 명하여 상례(喪禮)를 준비케 하고 3일간 조정의 정무(政務) 보기를 철폐하였으며 사전(四殿)에서도 간소한 찬으로 드리게 하였다. 곤전(坤殿)에서는 슬픔을 표시하고 예에 따라 제문을 지어서 중사(中使)를 시켜 별도로 제사를 올리니 모두들 근세에 없던 특이한 예우(禮遇)였다. 공이 흥치(弘治) 신해년(辛亥年, 1491년 성종 22년) 10월 19일에 태어나서 가정(嘉靖) 무오년(戊午年, 1558년 명종 13년) 6월 19일에 졸(卒)하니 나이가 68세이다. 태상시(太常寺)에서 시호(諡號)를 ‘충혜(忠惠)’라고 하니, 임금을 섬김에 충절을 다하는 것을 ‘충(忠)’이라 하고 관유(寬裕)하고 인자한 것을 ‘혜(惠)’라 한다. 이해 8월 12일 통진(通津) 모산(某山)의 선영 아래 간좌(艮坐坤向)의 언덕에 예식을 갖추어 장사지내니, 유명(遺命)에 따른 것이다.

공의 성품이 단아하고 조용하며 자세하고 신중하게 처신하고 타인과 접촉함에 있어 간약(簡約)하고 공평하며 용서하여 강유(剛柔)를 잘 이루었으므로 평소에 사람들이 그의 관대하고 화평함을 좋아하였으며, 일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그의 굳고 곧음을 두려워하였던 까닭에 모두들 감히 사사로운 일을 요청하지 못하였다. 원래부터 검소한 것을 숭상하여 성색(聲色)의 즐김과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습관을 모질게 끊었으므로, 비록 귀하고 현달함이 극에 달했으나 문후하러 오는 거마(車馬)의 요란함은 보기 드물었으며 청한하고 검약함이 귀하게 되기 전과 한결 같았다. 한가롭게 한 방에 앉아서 일찍이 서책을 외면하는 법이 없었고 언소(言笑)가 또 적었으며, 여시(女侍)가 앞에 가까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평생 시 선행을 즐기고 선비를 사랑하며 반드시 장려하여 인재를 기르고자 하였으므로 선비들의 공론이 소중하게 여겼고, 그 문사(文辭)를 지

음에 있어 옛 사실들을 인용함이 풍부하고 민첩하여 늘 자의(諮議)함을 당하였는데, 힘써 간략한 말을 하고 취해 재결하고 쓸데없이 말이 많은 것을 즐기지 않았으며, 입시(入侍)하여 문장을 강론할 때는 반드시 도리를 연구하여 시의(時宜)에 맞게 비유하니 사람들이 비로소 그 문장에 뛰어나고 그 학문이 깊음을 깨달았다.

공이 어릴 적부터 조용하고 묵중하여 영리에 따르기를 즐기지 않았는데, 신묘년(辛卯年, 1531년 중종 26년) 이후부터 국시(國是)를 정하지 못하여 조정 인물들의 진퇴가 일정하지 않았으나 험뜰고 칭찬함이 공에게 미치지 않은 까닭에 스스로 호를 ‘보암(保庵)’이라고 하였으니, 대개 또한 뜻을 의탁한 것이었다. 공이 관직에 있을 때는 비록 수고롭지 않아도 힘써 그 직분을 다하고 권력과 요직에는 문득 회피하고 있기 싫어하였다. 근래 양전(兩銓,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의 장관이 결원일 때면 반드시 좌우 정승에게 의논한 연후에 결정하고, 누가 자문 받으러 오면 공이 반갑지 않게 말하길, “당연히 스스로 옮겨 가려서 적용할 것이지 내가 어찌 감히 말하겠는가?” 하며 비록 굳이 간청하여도 끝내 말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사림(士林)들 사이에 이재를 추천한다는 핑계로 논의함에 있어 봉당(朋黨)에 덧붙임이 점점 넓어지자 식견(識見) 있는 자들이 정사에 해를 미칠까 근심하였는데, 공이 경연(經筵)에서 유순한 말로 진술하고 과실있는 자를 적발해 폄척(貶斥)하여 재화가 뻗어나지 않도록 하니, 인정이 겨우 안정되었다.

공이 선친의 비명을 몹시 원통하게 여겨 슬프고 서러운 생각이 항상 마음에 걸려서 평생토록 동쪽 시가지를 지나가지 않았으며, 남들과 더불어 연회 때에도 즐겁게 농담해 본 적도 없었다. 매양 기제일이 다가오면 월초부터 거친 음식을 먹고 기일(忌日)에는 제사지내면서 반드시 호곡(號哭)하여 망극한 슬픔을 감소시켰으며, 혹시 꿈속에서 선친의 얼굴을 보게 되면 종일토록 눈물을 흘렸고 초하루 보름 때에는 몸소 사당에 나아가서 잔을 올렸으며 비록 초도일(初度日, 환갑(還甲))을 당하였을 지라도 역시 성악(聲樂)을 갖추어 헌수(獻壽)함을 즐기지 아니하였다.

심연원 [沈連源] (국역 국조인물고, 1999. 12.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충혜공 제향



충혜공신도비 유형문화재146호

(世宗 28年 丙寅6月23日 己未)

# 世宗大王 妃 昭憲王后 諡冊(세종대왕 비 소헌왕후 시책)

(시책(諡冊):죽은자의 생전행적에 의하여 임금이 내려주는 칭호)

體順嗣音 助已多於內治 節惠定諡 禮宜光於後昆 肆稽彝章 用加徽號 大 (채순사음 조이다어내치 절혜정시 예의광어후곤 사계이장 용가휘호 대)  
 行王妃沈氏 稟柔坤之質 擬優月之姿 實應立配之期 夙成懿德 來嬪在潛 (행왕비심씨 품유곤지질 용언월지자 실응입배지기 숙성의덕 래빈재잠)  
 之日 久爲好述 洎紹瑤圖 遂陞椒掖 克修陰教 益勤母儀 心無險陂 私謁之 (지일 구위호구 계소요도 수승초액 극수음교 익근모의 심무험피 사알지)  
 非 道有警戒 相成之美 關 正始 式廣二南之風 燕謀鍾祥 永篤三韓之慶 (비 도유경계 상성지미 관휴정시 식광이 남지풍 연매종상 영독삼한지경)  
 謂共享於五福 何奄於中年. (위공향어오복 하엄걸어중년)  
 乘彼白雲 顧眞雉之二遠 觀茲筍管 懷良佐而長歎 載揚丕顯之稱 聿嚴追 (승피백운 고진어지이원 도자동관 회양 좌이장탄 재양비현지칭 율엄추)  
 崇之典 是用遣臣 右議政 河演 奉冊贈諡曰 昭憲 想明靈之不彫 庶寶命是 (송지전 시용견신 우의정 하연 봉책 증시알 소헌 상명령지부매 서보명시)  
 膺赫兮喧兮 耀貞輝於罔極 悠也久也 延洪祚於無疆 (응혁혜훤혜 요정휘어망극 유아구야 연홍조어무강)  
 撰進之臣 姓名不傳 (찬진지신 성명불전)

## 소헌 왕 후 시 책

(세종28(1446)년 병인 6월 23일 기미에 올린 것이다.)  
 순명(順命)을 체득하여 휘음(徽音:후비의 아름다운 덕행과 언어)을 이었으니 도음이 이미 내치(內治)(안을 다스리다)에 많이 있었기에 은혜를 기리는 절목으로써 시호를 정하니 예도(禮道)가 마땅히 후손들에게 빛날 것이로다. 그러므로 이에 이장(昧章뻗뻗한 장전(章典)을 계고하여서 휘호(徽號)(왕비가 죽은 후 시호와 함께 올리던 존호)를 더하는 바이로다.  
 대행왕비(大行王妃) 심씨(沈氏)는 품성이 유순하고 곤위(坤位:왕후)의 자질이 있었고 언월(優月: 반달 같은 형상 후비의 골상(骨相)을 이르는 말)의 자태를 모아서 실로 배필로 세울 기대에 부응 하였도다. 일찍이 아름다운 덕행을 이루어 과인이 잠저(潛邸)에 있을 때에 빈(嬪)이 되어 와서 오래도록 좋은 짝이 되었는데 요도(瑤圖:왕위)를 이음에 미치어 마침내 초액(椒掖:

중전)에 오르게 되니 능히 음교(陰教)를 닦아 모의(母儀)더욱 부지런히 하였도다.  
 심중에는 험피(險穽:마음이 비꼬이고 사특함)함이 없고, 사사로이 청알(請謁)(찾아 뵈기를 청함)하는 일을 막았으며, 말씀에 경계하고 서로 돕는 아름다움이 있었노라.  
 관저(關雎:시경에 나오는 새 이름으로 금실이 좋은 물수리 같은 부부를 뜻하는데 문왕 비를 상징함)로 근본을 바르게 하고, 이남(二南:(시경)국풍(國風)의 주남(周南)과 소남(召南)과 같은 경지)의 풍화(風化:백성을 교화하는 일)를 넓히었으며, 연매(燕誡:아들을 구하는 제사로 자손을 많이 두고자 기원하는 것)로 상서로움을 한데 모아서 길이 삼한(三韓)의 경사를 돈독히 하였으므로 함께 오복(五福)을 누리기를 생각하였거늘 어찌 중년(中年)에 문득 영결(永訣)하게 될 것을 상상하였으리요.  
 저 흰 구름을 댔으니 돌아보건대 진가(眞駕: 혼령이 탄 수레)는 이미 멀어지고 이에 동관(東管: 붉은 칠을 한 북대로서 글을 잘 쓰는 문관이나 또는 그런 문관이 공덕을 기록한 글)을 보니 어진 보좌(輔左)에의 회포에 긴 탄식이 나는 도다. 이에 크게 드러내는 칭호로서 드 날리어 비로소 추송(追崇)의 전례(典禮)를 엄중히 하고 자 우의정(右議政) 하연(河演)을 받들어 시호를 소헌(昭憲)이라 증(贈)하노니 상상컨대 영령(英靈)이 어둠지 아니하거든 두루 보명(寶命)을 이에 받아들일 진저, 그리하여 혁혁(赫赫)한 정휘(貞輝)를 다함없이 빛내고 유구히 멀고 오래도록 흥복(洪福)을 가없이 누리도록 늘여 줄지어다. (지어올린 신하의 성명은 전하지 않음)



양력 4월 28일 소헌왕후 기신제



중대산 입구 심문의 상징인 만지송

## 살의유머

## 중국집

점심 때 중국집에서 나는 우동, 친구 들은 자장면을 시켰다. 웨이터가 주방에 대고 소리쳤다.  
 “우~ 짜짜~.”  
 잠시 후 7명의 손님이 중국집에 들어왔다. 그들은 우동 3개에 자장면 4개를 시켰다. 웨이터는 또 주방 쪽을 향해 소리쳤다.  
 “우~짜 우~짜 우~짜짜.”  
 나는 속으로 ‘줄여서 잘도 전달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 얼마 후 단체손님 20여 명이 한꺼번에 들어왔다. 이 사람들 주문도 가지각색이었다. 자장 7, 우동 4, 짬뽕 6, 울면 2, 탕수육 2, 간풍기 1 등등... 매우 복잡하게 주문했다. 그래서 저 메뉴를 어떻게 전달하나 유심히 봤더니... 웨이터는 주방을 향해 고개를 돌려 아주 간단하게 전달했다.  
 “이봐~ 너도 들었지?”



목수는 비록 남의 집일망정 작고 예쁜 집을 짓는 것이 소원 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에게 크고 으리으리한 집만을 지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수는 가난한 부부의 작은집을 지어달라는 주문대로 방도, 부엌도, 꽃밭도 아주 작은집을 지었습니다. 게다가 돈이 없어 울타리도 없는 집이었습니다.  
 “어머나! 난쟁이가 사는 집 같네.” 가난한 부부네 집을 본 동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목수는 자기가 지금까지 지어놓은 집주인들이 어떻게 사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집부터 순례하기로 했습니다.  
 맨 처음 찾아간 집은 초록색 철문을 단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는 다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물건 내부치는 소리까지 났습니다.  
 “죽여요 죽여!” “죽이라면 못 죽일 줄 알아!” 두 번째 찾아간 집은 아이들만 사는 집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얼굴을 못 봐요. 대신

## 세상에서 제일 큰 집

전기밥솥이랑 세탁기랑 살아요.” 목수는 더 이상 다음 집을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힘없이 걷고 있는데 낮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수님 아니세요?” 작은 집을 지어준 바로 그 가난뱅이 부인이었습니다. 여전히 울타리도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돈을 버시면 울타리를 하셔야겠네요.” 그러자 부인은 펄쩍 뛰었습니다. “울타리요? 우리 부부는 그냥 지내기로 한걸요. 울타리가 없다 보니 아무라도 찾아 올 수가 있고 그리고...”  
 “밖의 세상 전체가 우리 집 인듯 하지 뭐겠어요.” 가난뱅이 부인이 부끄러운 듯 얼굴을 가렸습니다. “밖의 세상 전체가 다요?” “네, 밖의 세상 전체가 다...” 부인의 얼굴은 더없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디 행복하게 사십시오.” 목수는 기쁜 마음으로 그 집을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행복은 집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글 제공: 대중회 관리부장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들려주는 우리 靑松沈家 이야기(1)

# 썩은 새끼줄로 호랑이를 묶어라

## - 선대 묘소와 시조 묘소 이야기



**심 후 섭 (沈厚燮)**

종보편집위원  
아동문학가·교육학박사  
전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교육장  
현 사단법인 우리예절교육원 원장

시조(始祖)는 한 나라나 한 성씨(姓氏)를 맨 처음 일으킨 분을 말해, 우리 청송심가(靑松沈家)의 시조는 '홍(洪)자, 부(孚)자' 할아버지야. 즉 심홍부(沈洪孚) 할아버지가 우리 심가의 맨 처음 할아버지이지.

'홍(洪)'은 '큰물'을 말하는데 '크다'와 더 붙어 '넓다'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고, '부(孚)'는 '미덥다, 미쁘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이름 속에는 크게 미더운 사람이라는 뜻을 품고 있어.

어느 성씨이거나 간에 시조가 있으면 그 선대(先代)가 있기 마련이야. 왜냐하면 시조에 계도 아버지는 없을 수 없거든. 그러니까 선대는 바로 앞 조상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모든 조상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해. 그런데 시조의 아버지나 또 그 아버지의 아버지는 왜 우리가 모르는 것일까?

그것은 기록이 없기 때문이야. 글자가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글자가 있어도 기록해 두지 않으면 먼 훗날 사람들은 알 수 없지. 그래서 기록에 남아있는 사람이 시조가 되는 거야. 한 나라의 역사에도 선사시대(先史時代)라는 것이 있어.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고 그저 말로만 전해 오는 역사를 말해. 그런데 말로라도 내려오면 다행인데 수만 년 전의 이야기는 그마저도 희미해서 그저 추정만 할 뿐이야.

그럼 우리 청송심가 시조 홍부(洪孚) 할아버지의 선대는 누구일까? 역시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어. 그런데 청송 중대산(中臺山) 종턱에 가면 청송심가 선대 묘(墓)로 알려진 산소가 있어. 그 인근 마을 사람들이 그 묘소는 하나 같이 청송심가들의 묘라고 하거든.

아마도 홍부 할아버지가 고려시대 때에 당

시 수도였던 개경에서 벼슬을 지내기 이전에 조성된 산소로 보여. 그런데 기록이 없으니 정확하게 어느 분의 산소인지를 알 수 없어. 그렇지만 우리 심가의 오래된 산소이고 보면 우리 선대 묘소인 것만은 분명하고…….

그런데 이 중대산 산소의 혈(穴)이 아주 대단하다고 해. 수많은 전란과 흉년을 거쳤음에도 이 산소는 곳곳이 남아서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였거든.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이 산소를 가리켜 '휴삭박호형(虧索縛虎形)'이라고 해. 즉 썩은 새끼줄로 호랑이를 꾀 못하게 잡아 묶는 형국이라는 거야.

그래서인지 우리 심가들은 그 동안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무리 어려워도 묵묵히 지혜를 발휘하여 잘 헤쳐 왔다고 볼 수 있구나.

또한 홍부 할아버지의 묘소도 대단한 형국이라고 해. 묘소 바로 앞이 매우 가파른 낭떠러지인데도 불구하고 묘역에 들어서면 아늑한 느낌을 줘. 이곳 사람들은 이 산소의 묘혈을 '등잔혈(燈臺穴)' 또는 '배등혈(背燈穴)'이라고 해.

즉 이곳은 불을 비추는 등잔처럼 생겼다는 것이지. 이 묘소 아래에는 묘소를 지키기 위해 세워진 절 보광사(普光寺)가 있고, 절에 딸린 만세루(萬歲樓)가 있는데 만세루 아래에는 맑고 깊은 샘이 있어. 이 샘을 유지(油池)라고도 하는데 이는 이 샘이 등잔을 밝혀주는

기름을 공급하는 못으로 보았기 때문이야.

그런데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처럼 등잔은 바로 아래에는 그늘이 생기지. 그래서 이 산소에서 가까이 있는 후손보다 멀리 있는 후손이 더 잘 된다는 이야기가 있기도 했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떤 할아버지가 멀고 가까움을 따지겠니.

더구나 배등은 벽에 걸린 등잔을 말하니 그림자는 벽에만 조금 생기고 방바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 혈을 '원근명등혈(遠近明燈穴)'로 바꾸어 부르고 싶어. 선조 묘소 가까이에 있으나 멀리 있으나 다 같이 밝게 비추어준다는 뜻이 들어있어.

그래, 우리 선조들은 이처럼 산소 하나에도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셨구나. 우리는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에서 교훈을 찾아내어 우리의 앞길을 더욱 밝게 헤쳐 나가야 할 거야.

참, 시조 묘소 묘비에는 고려조문림랑위위시승 심홍부(高麗朝文林郎衛尉寺丞 沈洪孚)이라고 새겨져 있단다.

위위시(衛尉寺)는 왕의 행차에 필요한 의장(儀仗)과 기물(器物) 등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이고, 승(承)은 정6품에 해당하는 직책이래.

묘비의 글씨는 한말(韓末)의 율곡은 선비이자 서예가였던 해관 윤용구(海觀 尹用求) 선생의 글씨란다. <다음호에 계속>



① 시조묘소  
② 중대산소 입구 만지송(萬枝松)  
③ 중대산 선대 묘소 입구 표지석

## 2018(戊戌)년 춘계 향사일 안내(春季 享祀日 案内)

### 대종회주관

世	휘(諱)	양력	음력	요일	장 소
시조(始祖)	文林郎公(諱:洪孚)	04.06	한 식	금	경상북도 청송군 덕리 산33. 보광사
	中臺山墓所	04.06	한 식	금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부곡리 산1. 중대산
二	閭門祗候公(諱:淵)	04.26	03.11	목	전라북도 익산시 함남로634 .남당산
三	靑華府院君(諱:龍)	04.28	03.13	토	경기도 안성시 안성맞춤대로1224-26
	靑華府院君 配位 金氏	04.28	03.13	토	경기도 안성시 도구머리길148-14
四	靑城伯(諱:德符)	04.30	03.15	월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산110
	靑城伯 配位 淸州宋氏	05.02	03.17	수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매봉로 28.계룡리슈빌204동
	岳隱公(諱:元符)	05.10	03.25	목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경의재(景義齋)

### 조선왕릉 제향

王 后	昭憲王后(세종비)제4대	04.28	고정	토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901-3.영능(英陵)
	仁順王后(명종비)제13대	04.29	03.14	일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727. 강능(康陵)
	端懿王后(경종비)제20대	03.08	01.21	목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6-23동구능, 혜능(惠陵)
	淑容沈氏	04.15	4월첫째	일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126(구 진관외동)
	世宗大王	04.08	고정	일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901-3 영능(英陵)
	宗廟大祭	05.06	5월첫째	일	서울시 종로구 훈정동1-2(종로3가 종묘)

### 소종회주관

五	安孝公(諱:濫)	04.06	한식	금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01
	三韓國大夫人(順興安氏)	04.29	03.14	일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오흥리 산32-1
六	良惠公(諱:石檜)	05.05	03.20	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19
	恭肅公(諱:會)	04.09	고정	월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정문로237

세종대왕 비

소헌왕후 심씨의 태실(胎室)을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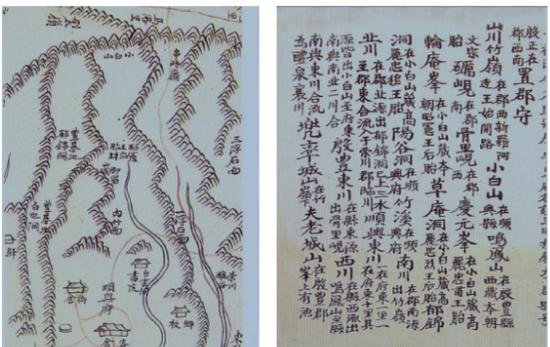
(1395.9~1446.3)

(태를 모셔두는 돌방)

**1. '태실'이란?** : 태실은 왕이나 왕실 자손의 태를 모셔두는 작은 돌방이다. 소헌왕후는 양주 동면의 사가(私家)에서 태어났으나, 당시 사대부 집안의 습속에 따라 태를 묻어두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왕후가 됨에 따라 왕실의 예에 의거하여 새로운 태실과 태를 넣을 단지인 태호(胎壺)를 제작하여 봉안했던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태실을 '가봉태실(加封胎室)'이라고 한다.

**2. 태봉산을 찾아가셨나** : 필자는 근래 대중회의 심갑택 문화이사님과 동행하여 영주 소백산의 소헌왕후 태실을 찾아 나섰다. 그러나 영주시는 물론 현지에 가서 수소문했으나 태봉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영주시 순흥면 배점리의 초암사(草庵寺) 관계자의 조언을 듣고, 심현용 박사의 논문에서 보았던 사진과 대조하면서 태봉산으로 믿어지는 길을 따라 등산을 하였다. 겨울 산이라 눈이 쌓여있고 빙판길에 날은 어두워지고 더 이상의 답사는 무리였기에 어쩔 수 없이 종보에 실는 태실 사진은 기왕의 책들에서 사용하기로 귀가하였다.

**3. 태실의 조성파 보수** : 소헌왕후의 태는 양주 동면에 매태(埋胎)되었다가, 왕비가 된 지 20년 만인 세종 20년(1438) 5월 15일 경상도 순흥부의 소백산 윤암봉(태실봉)에 가봉태실로 다시 장태되었다. 새롭게 마련한 태실 터는 천하의 명당으로, 그 유명한 죽계(竹溪)9곡의 제1곡인 '금당반석'을 내려다보는 곳이었다. 2년 전에 필자는 이곳을 답사하였다.



〈(좌) 『海東地圖』, '順興府'에 나타난 태봉, (우) 『海東地圖』, '豊基縣'에 나타난 소헌왕후 藏胎 기사〉

기록상 태실은 세조때 보수되었고, 현종 7년(1666)에도 왕명으로 보수되었다.

“소헌왕후 태실이 석물 보수와 벌목을 시작하는 길일을 (...) 10월 12일 고유제를 지내고 새벽에 공사를 시작하도록 (...)”

--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西三陵 胎室』 52~53쪽.

그러나 언젠가 태실은 파괴되었고, 태 향아리 조각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 중이다.

**4. 소헌왕후는 어떤 분인가?** : 소헌왕후는 어떤 분인가? : 숨죽이며 평생을 세종대왕을 위해 내조한 소헌왕후는 양주에서 태어났다. 조선이 개국된 직후였다. 이미 부친 안효공은 과거에 급제한 뒤 관직에 나가 있었고, 할아버지 청성백 심덕부는 조선 개국의 원훈(元勳)으로서 그 위상이 가히 하늘을 찌르는 지고한 신분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어났기에 훗날 세종이 되는 충녕군과 14세에 혼인하였고, 결국 왕비

가 된 것이다. 세종대왕의 왕비가 청송 심씨인 것은 청성백 심덕부의 위상 때문이라 하겠다. 저간의 사정을 모르는 식자들은 왜 청송 심씨 가문에서 세종대왕의 왕비가 출현했는지 의아해 하는 경우를 본다. 청성백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그러기에 청성백을 '심문의 호수'라고 필자는 부른다.

8남 2녀를 출산한 거대한 여인 소헌왕후. 알다시피 안효공의 참화로 집안이 파멸하였을 때 왕비의 자리를 보전하였다. 이는 기적 같은 일이다. 그마만큼 왕후의 행실이 올곧고 정숙하였던 것이다. 심적 고통이 막심했던 왕후는 52세를 일기로 세종 28년인 1446년에 수양대군의 집에서 승하하였다.

**5. 세종대왕이 왕비 심씨의 태를 소백산 명당에 안치한 까닭은?**

세종은 왕비인 심씨의 태실을 장엄하게 조성하여 이장하였다. 이를 통해 왕실의 신성성을 높이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이해된다. 세종이 왕이 된 지 20년 만에 곧이 왕비 심씨의 태를 봉안한 이유를 우리는 짐작한다. 심씨는 왕비로서 정숙하고 왕실의 내명부들을 질서 있게 이끌어 감으로서 국왕의 위엄을 돋보이게 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똑똑한 왕자들을 순산하여 왕실의 근본을 튼튼하게 했던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세종은 장인인 안효공의 참화를 가슴 아프게 생각해 오지 않았던가. 그러기에 끝까지 왕비를 두둔하며 포용하고 사랑해 마지않았던 것이다. 조선의 왕비 중에 세종비 심씨 만큼 자녀를 순산하고 남편인 국왕의 사랑을 독차지 한 '여인'이 있었던가? 우리는 그 영민한 세종이 자신의 내자를 위하여 그리고 왕실의 위엄을 높이려는 차원에서 소백산 명당에 태실을 조성하고 이장하였던 사실에 감격하게 된다.

더불어 순흥 지역은 소헌왕후의 모친인 순흥 안씨의 본향이다. 따라서 여기에 왕후의 가봉태실을 마련한 것은 그 의미가 남다를 수 있다. 훗날 단종을 몰아내고 집권한 세조에 저항한 소헌왕후의 6남 금성대군이, 유배 중에 모역사건으로 처형되고 안씨들도 다수가 화를 입었던 곳도 순흥이었으니 안타까운 노릇이다. 필자가 태실로 향하던 중, 택시 기사가 하천을 가리키며 '피골 마을'이라고 한다. 안씨들이 처형되어 그 피가 거기까지 흘렀다는 슬픈 사연이다.

**6. 현재 태실 터의 모습** : 소백산 윤암봉(태실봉)에 있는 터에는 민간인 묘가 들어서 있고, 주석과 횡주석 등이 흩어져 있다. 민간인 묘 앞에서 서 있는 주석은 원래 소헌왕후의 태실을 구성하던 '주석'이다.



민간인 묘의 망주석 기반부로 사용되고 있는 소헌왕후의 태석



소헌왕후 태실 移安 때 나온 태 향아리



소헌왕후의 태실을 본 따 만든 중종대왕 태실



〈(좌)민간인 묘 상석(床石)도 (우)계단도 소헌왕후 태석으로 보인다.

**7. 태실의 원형은 어떤 모습일까** : 심현용 박사의 결론을 제시함으로써 소헌왕후 가봉태실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왕후의 태실을 복원하였으면 한다. “지하구조를 편평하게 판측하여 황토류의 흙으로 메운 후 그 위에 전석을 평면 팔각형으로 먼저 깔았다. 그리고 그 안쪽에 상석과 중앙태석을 설치하였다. 또 외곽의 난간대는 전석의 팔각 모서리 위에 주석 1개씩을 꽂아 세우고 그 사이에는 동자주 없이 횡주석을 1개씩 걸쳤다. 그리고 이 팔각형 태실의 모서리와 일직선이 되게 앞쪽에 가봉비를 세웠다.(...) 소헌왕후 태실(은) 중앙태석을 비롯한 팔각난간석과 가봉비 모두 조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심현용, 「한국 태실 연구」 470쪽.

소헌왕후의 태실은 훗날 중종 태실에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기록을 보자.

“정사(1677) 8월초7일 : 중종대왕의 태봉 석물이 퇴락했을 뿐 아니라 (...) 석물을 개수(改修)하는 일은 지난 해 있었던 소헌왕후의 태실을 개수한 전례대로 고쳐야 할 곳은 고치고 그대로 두어도 될 것은 그대로 두며, 부러지고 깨진 돌은 깨끗한 곳에 묻는 것이 마땅합니다.” -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西三陵胎室」 59~60쪽.”

**9. 복원을 제안한다** : 소헌왕후의 태실은 조선 왕실의 첫 왕비 태실이다. 그 중요성이 큰 것은 말할 것도 없으나, 현재 그 유적이 전부 파손되어 형태를 알 길이 없는 형편이다. 이에 청송심씨대종회, 각 파 종회 등이 협력하여 복원을 시도하고, 여기에 전주이씨종약원과 영주시, 그리고 문화재청이 힘을 보탠다면 어렵지 않게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복원을 통해, 문화재청은 우리 문화 유산을 보전하는 책무를 다 하는 것이고 영주시는 자기 고장의 자랑 거리를 추가하는 셈이다. 소백산 등산로에 위치한 소헌왕후의 태실은 영주시의 문화유산이 될 것이다. 나아가 전주 이씨 문중은 왕실 유산을 보존하는 것이고, 청송 심문은 명문가로서의 위상을 드높이는 일이다.

심재석(문학박사)

종회탐방 시리즈 (37)

# 순천 종회 탐방기(順天 宗會 探訪)



**심 일 섭**

순천종회회장  
종보편집위원

대종회 갑택 문화 이사님은 서울 용산에서 8시 40분에 출발하는 전라선 705호 KTX열차를 타기 위하여 아침 6시에 집을 나섰더니 종사에 대한 열정이 없고서는 감히 엄두도 못 낼 일이다. 익산역에 열차가 진입하고 있다는 전화를 주셨다.

빠듯하면 오늘 계획된 일이 낭패가 될 테니 돌다리도 두들기며 건너듯 꼼꼼히 챙기는 것 역시 몸에 밴 일상일터다. 11시 20분, 이윽고 순천역에 내리니 겨울비가 내려 희끄무레한 하늘이 을씨년스럽다.下車하여 발길을 재촉하는 길손들을 두리번거리며 찾던 문화이사님을 플랫폼에서 만나 출구를 나가니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우산 2개를 들고 서 계시는 키도 크고 잘생긴 분이 계셨다.

아마 우리를 마중 나온 순천종회 회장님이라고 직감하고 인사를 드렸더니 예상이 적중했다. 일섭 회장님의 안내를 받으며 순천종회 임원이 기다리는 맛집에 도착했다. 相見禮를 나누고 일가붙이의 따스함이 스며드는 온정을 만끽하며 순천종회의 현황을 들으며 인터뷰를 시작했다.

### 1. 종회의 연혁

청송심씨 순천종회는 1988년 5월 5일 창립하여 종회 회칙을 제정하고 초대회장으로 상필(相秘)/전 순천농립전문대학 학장)을 선임하였으며 그간 역대회장님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에 힘입어 종회 발전을 기하면서 회원 간의 정을 돈독히 하고 있으며 세계5대 연안 습지인 순천만과 순천만국가정원을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한 日燮 순천시 민원복지국장님이 정년퇴임한 후 분회 9대 회장으로 취임하여 종회를 이끌고 있다.

### 2. 종회의 구성

본 종회는 순천시에 거주하는 청송심씨 성인이면 누구나 회원자격을 부여하며 종회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본 종회는 도총제공과(청성백 장남) 판사공과(청성백 차남) 지성주사공과(청성백 3남) 인수부운공과(청성백 4남) 안효공과(청성백 5남) 등 일가 100여 가구 180여명이 순천지역 주변에 거주하고 있으나 판사공과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종회 고문으로는 相秘, 浣植, 鎔植, 相植, 相珍, 海燮 / 회장 日燮, / 부회장 相錄, 良燮 / 감사 相福 / 총무 大榮으로 구성되어 있다.

註1 : 相植(현 대종회 부회장)

### 3. 종회의 설립동기 및 목적

순천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6개 시군에 터를 잡고 살고계신 종친을 대상으로 청송심문을 명문가의 반열에 오르게 하신 선조님들의 유업을 계승하고 자긍심을 살려 자아실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

### 4. 입향조와 선조의 행적

파조(派祖) 판사공(義龜)은 4세조 청성백(德符)의 둘째 아드님으로 운곡 원천석의 문하에서 태종과 동문수학하였으며, 학문과 덕

행이 뛰어나 고려 말에 음관(蔭官)으로 등용되어 조선 초에 관금의금부사에 재직하면서 조정의 기강을 확립하는데 기여하였으나, 소인배들의 질시에서 벗어나 지평현(양평)에서 은거(隱居)하면서 금서(琴書)로 소일하시다가 여조(麗朝)가 망한 후 전라판서공을 지내신 元符 숙부님과 함께 두문동에서 여생을 마쳤다.

註2 : 麗朝 - 고려의 조정 註3 : 琴書 - 거문고 타기와 글 읽기를 아울러 이르는 말

판사공 장남이신 6세조 좌랑공(溝) 보성 노루목에서 두 아들 유눌(由訥), 유강(由剛)이 함께 時居하여 적덕하니 자손들이 번창하였으며, 15세조 정양(貞良)의 두 아들 정영(廷泳), 정현(廷賢) 형제가 1710년도 보성 북내면 장천리에서 순천 별량면 봉덕마을에 정착한 이래 19세조 동운(東運)의 6형제 아들(能浩, 能作, 能寬, 能詢, 能輔, 能嫻)의 후손이 이곳에서 집성촌을 이루게 되었다.

### 5. 종회의 연중행사

- 정기총회는 연2회(봄, 가을)모임을 갖고 결산보고 및 사업계획 등을 회원에게 보고하며 임원 및 회원 다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 종회 창립부터 2~3년 주기로 관광버스를 대절하여「가족과 함께 뿌리를 찾아서 떠나는 시조 묘소참배」를 실시하여 송조돈목의 사상을 고취하고 있다.

### 6. 앞으로 종회의 계획

이곳에서 생활 근거지를 두고 계신 종친 중에 구성원이 되지 않은 靑松人을 대상으로 회원 가입을 확대하고, 종친의 애경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돈독한 일가의 情을 나누고자 한다.

### 7. 종회의 자랑

『판사공과 21세 종산(鍾山) 의현(宜炫)사당 건립』

종산 심의현(沈宜炫)은 1888년(고종25년) 전남 순천시 별량면 봉덕마을에서 (能寬)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효행과 우애가 남달리 뛰어났고 학문에 정진함에 열성을 다하였다.

順天鄉校 典校에 있으면서 일제 황도유학(皇道儒學)에 반대하는 등 반일의 선봉에 섰으며, 별량초등학교 설립 부지, 면소재지 이전 부지 및 市場 부지를 희사(喜捨)하여 지역사회의 인재교육과 이 고장 산업을 일으키는 선각자로서 지역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청송심씨 의현(宜炫)을 찬양하기 위해 1956년 3월에 전 민민의 이름으로 공적비를 세워 그 위업을 기리고 있다.

註4 : 皇道儒學-일본 황제를 받들자는 유학

註5 : 공적 비문 내용 - “이 어른의 이름은 宜炫이요, 자는 敬允이며 鍾山은 아호이다. 李朝 초에 좌의정을 지낸 청송심씨 청성백 휘 德符의 17대 손이며, 후동지 벼슬을 지낸 휘 能寬의 아들이시다. 어른은 몸가짐과 성품이 비범하고 풍채는 못사람 중 뛰어났고 매사에 정성을 다하였으며, 주민들이 힘입은 자 적지 않았도다. 앞서 학교를 세워 후손들을 교육하고 시장을 신설해서 팔고 사는 일상생활에 편의를 다하는 데 이 어른의 노력과 주선한 힘이 컸 도다. 그 공을 어찌 잊으리까. 이에 이 적은 돌에 새겨 후세에 전하고자 하노라”

2001년 순천시에서 지역을 빛낸 교육, 문화, 체육 등 인사에 대한 현창(顯彰)사업 일환으로 鍾山 宜炫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별량면 종산(鍾山)사당(祠堂)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市費지원 5천만원과 순천 종친들의 헌성금 1억8백만원으로 마산포구에 펼쳐진 원창 딸이 내려다보이는 선생의 묘소 옆에 종산사당과 청원재(靑遠齋) 추원문(追遠門)을 준공하여 매년 12월에 제향을 올리고 지역사회와 후손에게 그 업적과 열을 널리 알리고 있다.

### 8. 대종회에 건의 및 감사 말씀

순천 종회는 남부지역 6개시 군(여수, 광양, 고흥, 보성, 구례, 곡성 등)의 중심지이며 교통 요충지로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 습지, 송광사, 선암사, 낙안읍성 등 문화유산을 보유한 곳으로서 최근 남도관광 1번지로 부각되고 있음에 따라 전국 각지에 계신 靑松人이 남부지역을 방문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겸한 청송회관을 건립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지난해 11월 3일 4세조 靑城伯 齋閣 竣工式에 차량 대절비 지원으로 원거리 순천 종회가족(42명)이 참석하여 제향과 기념식수, 준공 헌성금을 드리는 기회를 마련하여 沈門에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맺는 말

인터뷰를 마치고 이곳 일가어른들과 함께 순천만 쉼터를 돌아보며 순천의 진면목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겨울비에 옷을 적시면서도 남녀가 쌍을 이뤄 발길을 잇는 순천만 쉼터에서 이루어지는 머물고 싶은 삶의 흔적들은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이다. 순천역까지 환송해준 순천종회의 일섭 회장님을 비롯 일가 어른들의 따뜻한 배려에 감사드리며, 순천 종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탐방자 : 심수영 편집위원, 심갑택 문화이사



① 鍾山 宜炫선생 공적비



② 鍾山 宜炫의 재각 청원재(靑遠齋)



③ 추원문(追遠門)

##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습니다



심덕섭

국가보훈처차장

안녕하세요? 국가보훈처 차장 沈德燮입니다. 국가보훈처는 1895년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독립유공자를 발굴·포상하고 있습니다. 1947년 정부가 수립된 이래 모두 14,830분이 독립유공자로 포상 받았습니 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 훈장을 전달하지 못한 독립유공자가 5,622분에 이릅니다.

독립유공자 포상자 중 沈씨는 모두 70분입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헌신 하신 분들이 우리 심문에서 이렇게나 많이 배출되어, 저도 沈가의 일원으로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으로, 「상록수」·「그날이 오면」으로 유명한 소설가

이자 시인인 심훈(沈勳, 본명 심대섭) 선생은 1944년 학생 비밀결사인 「조선희복연구단」을 결성하여 일제에 저항하다 체포되어 고초를 겪으셨습니다(건국훈장 애국장). 남도 제일의 의병장” 전남 함평 출신의 심남일(沈南一) 선생은 1908년 호남창의회맹소를 주도하다 일제에 체포되어 사형 순국하셨습니다(건국훈장 독립장).

반면, 1920년 의열단체인 「조선독립보합단」을 결성하여 밀정을 처단하다 체포되어 사형 순국한 심창숙(沈昌淑) 선생(건국훈장 애국장)은 아직 후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독립유공자로 포상된 심씨 중 훈장을 전해드리지 못한 분이 스무 분이나 됩니다(표 참조). 이 분들의 후손들에게는 국가에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해 드립니다. 훈장을 받지 못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이거나, 후손을 알고 계신 분들께서는 국가보훈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참고 심씨 독립유공자 중 후손 미확인 명단 (20명)

성명	한자	운동계열	출신	훈격	성명	한자	운동계열	출신	훈격
심경섭	沈敬燮	의병	강원 영월	건국훈장 애국장	심경지	沈敬之	3.1운동	강원 화천	대통령표창
심관용	沈寬用	만주방면	함남 단천	건국포장	심광옥	沈光玉	의병	미상	건국훈장 애국장
심낙선	沈洛先	의병	전북 용담	건국훈장 애족장	심낙준	沈落俊	의병	경남 거창	건국훈장 애국장
심노술	沈魯述	의병	황해 평산	건국훈장 애국장	심노식	沈老植	의병	황해 연안	건국훈장 애국장
심대유	沈大有	의병	전북 용담	건국훈장 애족장	심상룡	沈尙龍	3.1운동	전북 임실	건국훈장 애국장
심성우	沈性禹	3.1운동	평남 용강	건국훈장 애족장	심용식	沈用植	의병	경기 장단	건국훈장 애족장
심우상	沈尙相	의병	전북 용담	대통령표창	심유선	沈有先	3.1운동	함남 장진	건국훈장 애족장
심재명	沈在明	3.1운동	평남 용강	건국훈장 애족장	심정봉	沈正鵬	국내항일	미상	건국훈장 애족장
심주현	沈周鉉	의병	충남 당진	건국훈장 애족장	심창숙	沈昌淑	국내항일	평북 철산	건국훈장 애국장
심창업	沈昌業	국내항일	평북 철산	건국포장	심철석	沈七石	3.1운동	미상	건국훈장 애국장

## 지방(紙榜)과 축문(祝文) 쓰는 법

### 1) 지방(紙榜)

본래 신주를 모셔 놓고 제사를 지내야 하지만 신주가 없으면 지방을 써서 붙이고 제사를 지낸다. 지방은 깨끗한 창호지나 백지에 쓰며, 길이는 21cm 너비는 7cm 정도로 한다.

지방에는 관직이 있으면 관직을 쓰고 관직이 없으면 학생(學生)이라고 쓰는데, 학생(學生)은 처사(處事)라고도 쓴다.

‘顯考○○○○府君 神位’ 또는 ‘顯考學生府君 神位’

‘顯妣○○夫人○○○氏 神位’ 또는 ‘顯妣孺人○○○氏 神位’

부모(顯考 顯妣), 조부모(顯祖考 顯祖妣, 증조부(顯曾祖考 顯曾祖妣, 고조부(顯高祖考 顯高祖妣, 남편(顯妣), 처(亡室), 백부(顯伯父 顯伯母), 형(顯兄 顯兄妣), 동생(亡弟 亡弟嫂), 자식(亡子)

배위는 남편의 관직에 따라 1품이면 정경부인(貞敬夫人), 2품이면 정부인(貞夫人), 3품이면 숙부인(淑夫人), 4품이면 영인(令人), 5품이면 공인(恭人), 6품이면 의인(宜人), 7품이면 안인(安人), 8품이면 단인(端人), 9품이면 유인(孺人)이라 쓰며, 관직이 없더라도 9품인 유인(孺人)이라 쓴다.

### 2) 기제(忌祭) 축문 : 父母

維歲次干支 ○○月干支朔 ○○日干支

유세차간지 ○○월간지삭 ○○일간지

孝子 ○○ 敢昭告于

효자 ○○ 감소고우

顯考某官府君

현고모관부군

顯妣○○○氏 歲序遷易

현비○○○씨 세서천역

顯考(顯妣) 諱日復臨 追遠感時 昊天罔極

현고(현비) 휘일부림 추원감시 호천망극

謹以 清酌庶羞 恭伸奠獻 尙

근이 청작서수 공신전헌 상

饗

향

\* ‘顯’ 자와 뒤의 ‘향(饗)’ 자는 존칭으로 반드시 줄을 바꾸어 한 자 올려서 써야 한다.

### 각종 찬조현황 2017. 11. 29 ~ 2018. 1. 28

#### 지로 중보찬조 1만원

방섭 민성 희보 재진 재속 상우 상록 우섭 일택 재원 태섭 성기 해철 준섭 재현 우섭 상권 심덕 상훈 장보 기승 구진 상규 유섭 주섭 무영 영

#### 장학찬조

1,000,000 부사공중회(회장 재문) 300,000 진천월촌중회(회장 상영) 100,000 성보(대전)

#### ■ 중보·장학찬조 50만원 이상 찬조시 2회 사진게재



재문 부사공중회 회장 광섭 대중회 이사

중보, 장학찬조 200만원 2018년 1월 중보찬조 50만원 2017년 10월

#### 중보찬조

- 1,000,000 부사공중회(회장 재문) 이승수
- 300,000 진천월촌중회(회장 상영)
- 200,000 임피중회(회장 상용) 순천중회(회장 일섭)
- 120,000 범택(부천)
- 100,000 창용(인천), 언촌(수원)
- 50,000 승권(속초), 성보(대전), 정(광주)
- 30,000 강채(전남), 재충(남양주)
- 무수(경북), 강채(전남)
- 20,000 심동(부산)

#### 임원회비

- 17년임원회비 300,000 친구 부회장, 상화 부회장, 상록 부회장
- 200,000 상렬 감사
- 17년이사회비 50,000 상영(전북), 진식(광주), 은섭(충북), 상영(충북), 재욱(충북), 상렬(강원), 용진(서울) 명섭(경남), 준섭(광주), 언촌(경기), 상호(경기), 성보(대전), 봉섭(대전), 규실(경남) 점보(경남), 영중(충남), 갑택(경기), 언태(경기), 응보(울산), 용구(울산), 영구(울산) 광보(충북), 재균(광주), 재영(충남), 재덕(부산), 상동(안동), 상은(경기), 양섭(청주) 상배(대구), 재학(전북), 정섭(장성), 재금(서울), 재광(창원), 하섭(강원), 윤택(충남) 행섭(장성), 상철(전북), 재선(서울), 재만(피주), 정(광주), 광보(영인), 동섭(충천) 정섭(송파), 행근(천안), 한식(충남), 재근(김포), 상규(인천), 일섭(순천), 강수(인천) 수일(전북), 재안(서울), 재선(인천), 재용(서울), 광섭(강남), 흥주(경기), 재정(울산) 재윤(서울), 의석(경북), 재숙(경북), 종근(전북), 갑택(충남), 형천(김포), 동출(강원) 완택(태안), 익섭(동작), 영섭(안성), 재화(고성), 용섭(광진), 재구(삼척), 희주(분당) 상우(김포), 재모(경남), 상서(서울), 형구(서울), 흥섭(경기), 상조(서울), 현주(경기) 준보(서울), 규성(인천), 양섭(경기), 성섭(경기, 백강)
- 18년이사회비 50,000 성섭(경기, 백강), 훈(대구), 영보(서울), 현주(경기), 재모(경남)

### 2018년 지급 장학금 신청 공고

- 1) 장학금 지급 대상 및 수혜금액
  - 공고일 현재(2017년 11월 30일) 재학 중인 고등학생, 대학생(전문대 포함)을 기준으로 한다. (단, 대입 재수생 및 대학 5학년생 해당 없음)
  - 고등학교 50만원 / 대학교(전문대 포함) 100만원
- 2) 장학생 선발기준
  - 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 성적이 우수한 다문화 가정의 학생
  - 필수사항 : 5월 예정인 '뿌리교육' 이수 학생에 한함
- 3) 서류 제출처 및 제출기한(마감일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 : 3월 31일 까지 대총회로 접수
  - 비 수도권지역 : 학부모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 지역위원으로 3월 31일 까지(송부처 : 관할지역 장학위원에게 문의)
  - 각 지역관할 총회는 접수 서류를 4월 15일까지 대총회로 송부
- 4) 제출 서류
  - 1. 장학금신청서(반드시 명함판 컬러사진 2장 제출, 정보 게재 시 필요)
  - 2. 성적증명서 - 2017학년도 1, 2학기
  - 3. 추 천 서 - 학교장(고등학생), 지도교수(대학생)
  - 4. 통장사본 - 장학금 수령 학생 명의 (가급적 농협계좌)
  - 5. 가족관계 증명서 1부(중복 수령 확인용)
  - 6. 신청 양식은 청송심씨대중회 홈페이지(www.csshim.or.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 5) 장학금 수여
  - 5월 시행하는 뿌리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교육장에서 장학금 수여
- 6)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 수혜 학생은 추천대상에서 제외(고등, 대학 통합 1인 1회만 지급)

### 2017년도 정기 종보편집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 ◎ 일 시 : 2017년 12월 20일(수)11시
- ◎ 장 소 : 대총회회의실
- ◎ 참 석 : 편집위원 (동섭, 수영, 민섭, 석문, 상렬, 광섭, 규선, 재운, 재석, 성기) 편집인 갑택 문화이사
- ◎ 회의 내용
 

청송심문의 소식지인 종보(宗報)를 더욱 유익하고 알차게 제작하여 진일보할 수 있도록 종보편집위원회 위원들이 의견을 모아 아래와 같이 협의하였다.

  1. 현재 발행되고 있는 종보의 면수는 적당하나 기사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띄어쓰기, 오타 등에 대한 교정에 철저를 기한다.
  2. 동명이인(同名異人)인 경우 혼동되지 않도록 이름에 한자를 병기(併記)하거나 지역표시 등을 한다.
  3. 각 파종회 소개자료 및 탐사소식과 기타 심문의 금지를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을 넣도록 한다.
  4. 장학 및 교육사업 등 주요행사에 대한 공고사항은 되도록 8면에 게재한다.
  5. 선조님의 행적 및 유적 발굴에 힘쓰고, 기록으로 남아있는 현 선조님의 행적도 지면이 허락하는 대로 신도록 한다.
  6. 기타 관직에 관한 설명과 선명한 사진을 신는다.

#### 안효공배위 삼한국대부인 순흥안씨 기신제

1월 9일(음1월 23일)오후 7시  
 안 효 공 배 위 삼 한국 대 부 인 순 흥 안 씨 기 신 제 가 부 조 묘 인 수원시 이의동 재실에서 경향 각지의 후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고 경건하게 봉행되었다.  
 초헌: 명옥 회장 아헌: 재구(서울)  
 종헌: 행진(서울) 독축: 흥섭(서울)  
 집례: 영섭 총무이사



#### 청성백 재각 준공 기념식수



#### 청성백 재각부속건물



#### 위 축



**심 규 정** (64세)  
 대총회 재무이사(직대) 위축  
 (2018년 2월 1일자)

#### 철원종회 임원개신

고문: 상욱, 상하 회장: 상국  
 부회장: 재택 총무: 동섭  
 감사: 상규

#### 구미종회 임원개신

고문: 정세, 정규, 인섭 회장: 창석  
 총무: 재홍

#### 송 금 안 내

임원회비 · 종보찬조 · 장학찬조 · 족보대금 등 입금계좌

청송심씨대중회

농 협 : 301-0107-5873-71

#### 금지사항

- 1) 임원회비(이사회비 5만원, 감사회비 20만원, 부회장회비 30만원, 회장회비 300만원) 미납 임원께서는 2월 20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각종 찬조금 명세서에 착오가 있을 경우 필히 대총회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종보찬조 지료용지는 3월과 9월 종보에 동봉 발송합니다. (찬조금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자발적 참여임을 알려드립니다)
- 4) 모범종인 소개를 위한 종인탐방이나 종회활동을 전국종인들에게 소개하는 종회탐방을 희망하시는 종인이나 종회는 갑택 문화이사에게 신청 바랍니다.
- 5) 2000년도에 발간된 대동세보(경진보)를 대폭 할인하여 1질(총11권)에 6만원에 보급 합니다.
- 6) 2018년 지급 장학금 신청 접수중입니다.